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5월 4일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대구경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운영능력과 화력임무수행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을 판정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전군을 명사수, 명포수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불리일으키며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훈련지도를 받게 된 전연과 동부전선방어부대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구경별 화력타격수단들의 화력타격계획을 료해하시고 대구경장거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과정을 검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몸소 지켜주신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봉화를

추켜들고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실전을 대비해 훈련해온 군부대 군인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번개같이 기동하여 화력타격준비를 끝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력타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천둥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같은

섬광속에 시별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결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후련하게 끝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

대가 현대적인 대구경장거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운영을 정말 잘한다고, 모두가 명포수들이라고, 현대적인 무기체계에 정통하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치하시면서 예고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으

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어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있는 전연과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작전전투훈련을 개선강화해나가는데서 나오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고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자주권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즐기치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자나깨나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훈련을 진행하게 된 군인들의 흥분과 열의로 하여 훈련장은 불도가미마냥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소에 서 여러 장거리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료해하시고 화력타격훈련개시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우뢰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시뻘건 불줄기들이 설정목표방향을 향하여 창공을 기운차게 헤가르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을 판정검열

하기 위하여 기동과 화력습격을 배합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은 당이 지어 동부전선방어부대들도 화력타격태준 실용적실동훈련의 거세찬 불길속에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치를수 있도록 억척같이 준비된 전연과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력타격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와 제4차 포병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서

밝혀준바와 같이 훈련은 인민군대의 주업이며 강도높은 훈련실시가 인민군대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애국심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와 제4차 포병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서

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성된 정

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힘에 의해서서만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역세게 틀어잡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금야강 2호 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5월 4일 금야강2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전소건설경위와 실태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언제와 발전기실을 비롯한 발전소의 여러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상태, 전력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야군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증소형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풀 데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고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전기생산을 정상화하려고 잡도리를 하고있는것은 평가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한 군내인민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규모수력 발전소인 금야강군민발전소와 잇닿아

계단식으로 건설된 금야강2호발전소는 금야강군민발전소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퇴수와 여러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원천으로 해서 심한 갈수기철에도 계절적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할수 있다는 보증을 받으시고 증소형발전소로서 규모도 적당하고 수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타산을 잘하여 실리있게 건설한것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시, 군들에서 증소형발전소건설을 해당 지역의 수력자원을 정확히 조사하고 전력생산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실리를 따져가면서 하지 않아 술한 건설자재를 들여 발전소들을 건설해놓고도 물이 부족하여 전기생산을 능력대로 하지 못하는것을 비롯하여 그 덕을 얼마 보지 못하는것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야강2호

발전소에 계획대로 수천kW발전기를 다 설치하고 전력을 광범 생산하면 군내 지방공업공장들과 협동농장들은 물론 주민지구에 필요한 전력도 충분히 보장할수 있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완강한 의지로 힘으로 군살림살이를 윤택하게 꾸려나갈수 있는 중요한 밑천을 마련한 금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문없이

큰일을 한 금야군인민들을 무엇이라도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금야강2호발전소에 아직 설치하지 못한 발전기와 변압기들을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야군에서 커다란 재부인 발전소관리운영을 잘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고 군안의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군으로 변창하고 활기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고 따듯이 고무해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는 영광을 만나뵈고 과분한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은 금야군의 일군들과 금야강2호발전소 종업원들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창조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군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키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인민의 국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굳건히 고수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었으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어나가 고셨다. 자주는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룬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태도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하여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문제를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철저히 자주적립장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의 전지에서 분석하고 풀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우리 국가건설의 높이를 높이고나갈 데 대한 사상,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할데 대한 사상,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든든히 틀어

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가늠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힘으로 놀라운 발전상승의 길을 내달리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경제건설분야에서 전변과 발전을 가져 오고있다. 나라의 도처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서고 자체의 힘으로 만든 계도전차와 무계도전차 거리를 달리고있으며 트랙도르와 화물자동차들이 동음을 울리고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 서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온 나라에 인제중사, 교육중사의 열풍이 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철의 담력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곁싸이는 시련과 난국을 앞장에서 헤쳐 나가시며 불굴의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시어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를 좌절시키신것은 민족사상 특기할 불멸의 공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사랑의 새 령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공화국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어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의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천명하신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였다.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시는 그이의 인덕정치가애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더욱 굳건해지고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전설들이 끊임없이 꽃피어나고있다. 주체104(2015)년 새해의 첫날 평양약아원, 예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에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언제인가 평양시버섯공장(당시)을 돌아보시면서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거운 심증을 터놓으시고 또 언제인가는 깊은 밤 새형의 계도전차와 무계도전차의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계도전차와 무계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 어떤 령도에서 통일되고 강성변영하는 주체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내다보고있는 공화국의 인민은 그이의 령도를 일원단심 총직하게 받아들여나갈 심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인민의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는것이다. 뜨거운 민족애와 대해같은 도량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지난해 3월에 걸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도록 하시어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 오시였다. 그것은 각일각 전쟁의 증한 정세를 둘러세우고 평화변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령령의 출발을 선언한 사변이었다. 두철한 민족자존의 릉장과 명활한 지략으로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높은 국제적립위를 지니고 자주권과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복잡다단한 사태들을 목격하면서 세인은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원하고 있는 공화국의 정책이 얼마나 정당할것인가를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통일되고 강성변영하는 주체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내다보고있는 공화국의 인민은 그이의 령도를 일원단심 총직하게 받아들여나갈 심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 인민의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 공적강화를 위한 정력적인 령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밑에 얼마전 조선통해해상에서는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서는 그 어떤 세력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해치려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인민군대의 명철의 의지가 힘있게 표시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현대적인 대군경장거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운용을 정밀 잘한다고, 모두가 명포수들이라고, 현대적인 무기체계에 정통하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임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애고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얼마전 어느 한 비행군부대를 찾으시어 추격습격기들을 리륙시켜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조작을 시켜보도록 하시고 그들의 비행술을 지켜보시며 그 어떤 비행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대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군위부대운동과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지퍼주시고 인민군부대들의 실동훈련과 훈련경기들을 지도하시고 우리 나라의 자연리리적특성, 현대전의 요구하고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시니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전

투력은 비상히 강화되었다.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상태와 실전능력강화에 기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칠 대단한 배짱과 의지를 만장약하고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제일결사대로,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를 겸비한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되었다. 그이께서는 자위적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최전연초소도 찾은 회고회를 열고 포랑길도 헤치시였으며 각종 군사훈련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이께서는 군력강화의 길을 취임없이 걸고계시였다. 하기에 외국의 인사들은 《조선인민군은 정신력이 투철하고 실전능력이 높은 세계일류급의 강군으로 공인되고있다. 이것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 국가에서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나 가신다.》라고 격찬하였다.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비의 헌신으로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담보되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 말 할 자 격 도 없 으 면 서 횡 설 수 설 하 지 말 아 야 한 다

##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대답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은 요즘 남조선군당국이 우리 군대의 정당한 화력타격훈련을 두고 횡설수설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된것처럼 지난 5월 4일 조선동해해상에서는 조선인민군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었다.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관정을 위해 조직된 이번 훈련은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우리의 령해권안에서 진행된것으로 하여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수 없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이번 화력타격훈련을 두고 중장거리미사일발사도,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도 아니므로 그 무슨 《약속위반》이 아니라는 립장을 폈었다.

더우기 발사한 비행물체가 조선동해의 동북쪽 아군수역에 떨어져 미국이나 남조선, 일본 그 어디에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왕청같이 남조선에서 황당무계한 소리들이 울려나와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7일부터는 남조선군부가 대변인을 내세워 우리의 훈련에 대해 《북과 남이 약속한 군사적합의취지에 어긋난다.》, 《군사적긴장을 불러오는 실전훈련이다.》, 《긴장고조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횡설수설해대고 있다.

우리에게 당치않은 헐타기를 씌워보려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조선군부만은 우리에게 대해, 특히는 북남군사분야의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할 체면이 없다.

공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술한 비행대력량을 동원하여 주권국가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두주일동안이나 벌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에서는 상전의 《싸드》전개 훈련에 명석을 깔아주었는가 하면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 맨》을 발사한데 대해 꿀먹은 벼어리흥내를 내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동족에게 그런 수작질인가.

죽제비도 낮침이 있다는데 제할것은 다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싶다.

남조선군부에는 미국과 함께 벌려낸 연합공중훈련이 화려한 교예비행으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축모처럼 보이는 반면에 동족의 전술유도무기는 제 머리우에 떨어지는 생벼락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다.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에 병적으로 반응하는 남조선군부의 섬악한 신경이 걱정스럽다.

남조선군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하는가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그 정도의 화력타격훈련에 그렇게 화들짝

놀랄 지경이라면 그보다 더 위력한 첨단무기들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보게 되는 경우 흔적하지 않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허튼소리를 꿰쳐대기 전에 북남군사분야의 합의서를 다시 펴놓고 우리와 마주앉아 무엇을 합의하였는지 글귀부터 똑똑히 들여다보고 저지른것을 돌이켜보는것이 순리일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배신적으로 저지른 도발행위들로 하여 제아무리 발이 저러나도 해도 합부로 상대방을 걸고들 《용기》가 나지 않을것이며 동족에 대해 허를 가볍게 놀리다가는 못매를 맞을수 있다는 조심성도 생기게 될것이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저들이 과거의 군사적도발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우리 군대의 방아쇠가 몇번이나 당겨질번 하였는지 알고나 주절대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선언과 군사적합의서에 도전하여 지금까지 저지른 공개된 적대행위는 말할것도 없고 은폐된 적대행위의 2중적작태가 온 민족의 더 큰 환멸과 분노를 자아내고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처지에 횡설수설하다가가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되기 십상이니 입건사나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음바른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가 지속되고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바라고있다.

지난해에 북과 남사이에는 3차례에 걸쳐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었으며 북남선언들이 채택되어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향을 가져왔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령정의 출발을 선언하였다. 하여 조선반도에는 평화의 기류가 감돌고 우리 겨레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해에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펼치었으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가 삼천리에 차넘치었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못낼일이 없으며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에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리익에 부조종시키려는 외세의 간섭과 반

통일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또 다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내외반통일세력들은 평화와 번영, 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고 력사를 대결과 긴장격화의 과거로 되돌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현실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기 위한 단호한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 것을 약속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선언에는 북남사이의 적대관계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할 때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가 열리게 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민족성원

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리행하는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의의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민족의 자주군성을 호리켜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 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외세가 아니라 제 민족이 우선이다.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도 민족자주의 정신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서는 자기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주대와 주권도 없이 분주다사하게 돌아치며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기 위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가지고 민족앞에 자닌 책임과 의무를 대내외에 여기어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는 길에 있다.

본사기자 한 일 역

#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오늘날 북과 남사이에서 어렵게 마련된 관계개선의 소중한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가 지속되고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후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미국도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협이 절여지는 속에 파국

에로 치달던 과거에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타파하고 민족화합과 평화번영, 통일의 앞길을 즐기며 열어나가자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패당의 북남관계파괴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의 분렬사에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에 역행하여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친듯이 매달리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썩을수 없는 죄악이 기록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지난해초부터 조선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세찬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자 그것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왔다. 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의 북남관계대전환방침에 대해 《남남갈등과 미국과의 갈등을 노린 것》, 《전형적인 화전량면전술》이라고 터무니없이 헐뜯어대며 대결광기를 부리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되었을 때에는 《위장평화쇼》, 《북이 불리준대로 받아쓴 선언문》이라는 악당질로 모독하였다.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킬데 대한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힘써오며 지금은 이 시각에도 동족대결소동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세력들을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한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 꾸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짓부셔버리는것도 현시국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남조선군부호전장들은 올해에 들어와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명목을 내세워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 연습을 비롯

한 각종 훈련들을 강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 끝이난 선언문》이라는 악당질로 모독하였다.

이것은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략족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대동이다. 더우기 목과할수 없는것은 얼마전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공화국군대의 화력타격훈련에 대해 남조선군부호전장들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해댄것이다. 군부호전장들의 망발은 미국과 야합하여 은폐된 적대행위에 매달리며 북남군사합의를 략족하게 유린하여 이미 그에 대해 말할 자격을 강그리 상실한자들의 뻔뻔스러운 녀두리로서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향한 력사적호름에도 도전해서는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강 문 영

#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을 이루어나가자 남조선청년단체 성명 발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청년단체가 4월 27일 판문점선언발표 1돐을 맞으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을 이루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판문점선언발표이후 삼천리강토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열기가 넘쳐났지만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남북관계발전을 방해하였다

미국이 남조선미국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와 조선반도문제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면서 북에 대한 제재압력을 강화하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대세력역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방해하면서 동족대결소동

을 멈추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세우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판문점선언이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

#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군사연습소동

얼마전 남조선주둔 미군이 경기도 평택기지에서 고고도 요격미사일 《싸드》의 전개 훈련이라는것을 벌린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미군이 지난해 말 훈련용 《싸드》를 경상북도 성주기지로 이동시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한것은 있지만 평택기지에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북에 압박성세

지를 보낸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싸드》로 말하면 그 무슨 《북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끌어들이는 선제타격수단으로서 미국도 이 훈련이 지금의 정세에 어떤 후과를 가져왔는가 하는데 대해 충분히 알고있다.

미국의 《싸드》전개 훈련은 명백히 대조선제압살정

책의 연장으로서 어떻게 조성된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를 깨기 위한 군사적도발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위협공갈소동이다.

지금 《싸드》전개 훈련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비발치자 미국이 《공병부대가 참여한 화물호송훈련을 한것이다.》, 《해당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절차치자 《싸드》 훈련과는 전혀 무관하다.》

고 구구히 변명해나서지만 그것은 평화의 파괴자라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규탄을 모면해보려는 알락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미국의 책동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잠재적적수들에 의한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미호전계층의 전략에 따른것이다.》, 《《싸드》야말로 평화를 위협하고 새로운 령정을 불러오는 미제의 아시아침략의 필수적무기》라고 지적하고 《싸드》철폐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협에 의거한 대조선압살책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기로 확약한대로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미국은 힘으로는 우리를 놀래우기는커녕 그 무엇도 얻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안》을 비롯한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지 한주일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막아보겠다고 《국회》에서 고성과 폭행, 드러눅기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며 극단적으로 발악해온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닳뚝한 개신세로 되었다.

이에 악이 반친 《자유한국당》은 《좌파세력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좌파세력들의 《의회민주주의의 길을 파괴하고 좌파독재의 길을 열었다.》고 하면서 지명된 신속처리안건은 무효라고 고이대며 반 《정부》 망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얼마전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역적당부리들은 서울광화문광장에서 현 당국을 규탄하는 《3차장의집회》라는 광대국을 벌려놓고 《좌파세력》이 날치기로 쿠데타에 성공하였다, 《좌파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고 피대를 두구었다. 또한

《국회》앞에서 삭발놀음을 벌려놓고 《독재조롱》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쉼불》을 높이 들고 악정을 터뜨렸는가 하면 부산과 대구, 대전과 광주 등 지방을 싸돌아치며 현 《정권》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들을 연일 개최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무성이 청와대를 다이내미드로 폭파시켜야 한다고 웨쳐대어 여론의 못매를 맞고있으며 《태극기부대》의 광패부리들이 《자유한국당》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만사람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치권과 각계층 인민들은 《삭발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모일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 《국회에서 드러눅기, 고성과 폭행일삼기, 삭발하기 등 생애부리가 점입가경이다.》, 《장의 투쟁 말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치워라.》고 하

면서 역적당을 단죄조소하고 있다.

《국회》밖에서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략동은 정상적인 사고와 건전한 리성이 완전히 마비된 천하광패집단, 립종에 달달한자들에 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역겨운 추태이다.

《국회》안에서 드러눅이면서 역적당을 단죄조소하고 있다. 《국회》밖에서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략동은 정상적인 사고와 건전한 리성이 완전히 마비된 천하광패집단, 립종에 달달한자들에 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역겨운 추태이다. 《국회》안에서 드러눅이면서 역적당을 단죄조소하고 있다. 《국회》밖에서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략동은 정상적인 사고와 건전한 리성이 완전히 마비된 천하광패집단, 립종에 달달한자들에 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역겨운 추태이다.

을 강제해산한 파쇼교형리가 바로 황교안이다. 극악한 파쇼독재의 후예들이며 범죄자체인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제헌에서 《독재》니 뭐니 비린질을 들구어대고있는것이아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으로 양친대소할 노릇이다.

권력야망심현을 위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밖에 나가 《독재라도》를 떠들어대는 《자한당》에 돌아오는것은 민심의 저주와 분노뿐이다.

《자한당》해산을 바라는 민심에는 아랑곳없이 미친개처럼 각지를 싸다니며 온갖 망동에 여념이 없는 역적패당은 더이상 살려두어서는 안될 천하의 추물들이다.

저들의 권력야망심현을 위해 《국회》를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밖에서 세인의 지탄만 받는 별의별 추태들 다 부리는 력사의 폐물집단에게 남조선민심은 등을 돌려낸지 오래며 이미전에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이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죽어가는 보수세력을 굶어모아 역겨운 광대놀음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제 목에 걸려진 울가미를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조길남

또다시 분노한 초불민심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4.16헌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규모적인 초불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가로막는 범죄집단, 부패정당으로 강력히 단죄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산절차와 법을 존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초불민심이 들고 일어나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한국청년리더》, 청년당 등 진보적청년단체들도 《자유한국당》해산실천시민주원회(해산소) 준비위원회를 내오고 국민의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시민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심판식을 개최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이 이곳에서 반 《정부》 규탄집회를 벌여놓으려던 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에게 《당장 물러가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하면서 물벼락을 안기는 등 격렬한 투쟁을 벌여왔다.

한편 《경와대국민청원제시판》에 《자한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자수가 180만여명에 달하였으며 인터넷에는 《다시 초불을 들고 (자한당)》을 완전히 해체시키자. 《국민을 우롱하는 역겨운 친일매국노들, 다음해 총선에서 박멸하자.》 등의 글들이 수없이 오르는 등 역적당에 대한 민심의 심판기운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역사의 반동이며 시대의 오물인 《자한당》에 대한 남녘민심의 쌓이고 쌓인 저주와 분노가 폭발한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자한당》 패거리

들은 그 무슨 《좌파독재지지》, 《헌법수호》를 떠들며 현 《정권》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들을 개최하는가 하면 《국회》앞에서 삭발을 한다. 청와대를 폭파시키버려야 한다고 체재하는 등 남녘민심의 격분을 자아내는 란동을 거리낌없이 벌여놓고 있다. 《자한당》 패거리들의 이러한 망동이 초불투쟁의 성과와 전취물을 전복하고 보수세력의 재집권과 좌파독재부활을 위한 단말마적발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기에 민생은 아랑곳없이 재집권야망에 환장하여 민생에 역행하는 추악한 망동을 일삼는 역적무리들에 대한 각계층의 환멸과 격분은 이제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박근혜탄핵때 역사의 심판을 받은 보수패당이 감히 머리를 쳐들고 초불투쟁을 모독하며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날치고있는것이야말로 남녘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박근혜의 《국정》 통탄사건의 공범집단으로서 반성은커녕 사건건건 현 당국의 《국정》 운영발목을 잡은 《자한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분출된것이다. 이대로 나간다면 《자한당》이 다음해 《총선》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평가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후환이 없는 법이다. 좌파독재복귀와 동족대결에 기생해온 반역집단의 추악한 란동에 격분한 남녘민심은 보수적패무리들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깨개 쓸어버릴 만만한 투지에 넘쳐있다. 박영일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범죄자를 처벌하라》

서울에서 각계층 준중 초불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4.16련대의 주최로 4일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초불집회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황교안, 라경원 처벌하라》 등의 구호판들과 초불을 든 《세월》호참사피해자 유가족들, 시민들을 비롯하여 2 000여명의 각계층 준중이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막아보려고 광화문광장에서 그 무슨 《친박통성》을 벌려서 하고있다고 까뻐왔다. 광화문광장은 《세월》호참사 장본인의 처벌을 요구하여 유가족들이 목숨걸

고 단식을 하고 시민들이 눈비를 맞으며 진상규명을 쫓는 곳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수백명이 수장된것과 관련한 기록물을 없애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집단이 광장을 더럽힐수 없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악폐집단을 청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떳떳하게 살수 있겠는가고 절규하면서 그들은 《민정당》 해체의 합성이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쳐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진것은 그동안 국민을 짓밟은 집단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특권층을 보호하려고 유가족을 탄압한 황교안

을 처벌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유가족들이 앞장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초불을 다시 들고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을 몰아냄으로써 사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여기에 광범한 대중이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세월》호참사 좌파 독재인물 수사하라》, 《황교안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숨겨진자가 범인이다. 범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사기자

《자유한국당》 너에게 알날이 없다

광주의 불세례

김영일

다른 하늘에 매나인 비 내리듯 물세례가 퍼부어지네 변색스런 낯짝 쳐들고 광주 땅 밝은 황교안의 정수리에 물벼락이 쏟아져내리네

광주인민봉기는 《폭도들의 란동》 민심을 경악케 한 망발을 제친건 누구 희생자유가족은 《종북파과가 만든 괴물집단》 아물지 않은 상처에 칼을 박은건 또 누구 그 망언자들의 피수 황교안이 물세례 받았네

민심을 기만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낯짝에 썩음을 깔았대도 어느 정도지 5.18망언자에선 《정계》 아닌 《격려》로 기고돈 황교안 그 무슨 횡성수술 또 내뻗느냐

우산 펼쳐 물세례는 피할수 있다 해도 결코 정벌의 불소나기는 피하지 못하리니 광주는 분노한다 남녘의 민심은 절규한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황교안은 감옥으로!

《9.19군사합의 폐기》 《북의 도발분노》 《미국이 아닌 북을 설득》 대결망발 또한 세인을 아연케 하거니

독설만을 내뱉는 특기만 장기인가 권력욕에 환장한 못사내들과 《국회》의 복도에 벌렁 드러누워 망동과 란동의 주역으로 나선 라경원 그 행악질 또한 만사람의 경악 자아내누나

삭발

리송일

삭발을 했다네 《자한당》의 나으러들 장한듯이 삭발하고 떠들어대네 《비폭력저항》을 떠벌어대네

머리털처럼 많고많은 죄악 검고검은 악행의 흔적 감춰보려 삭발했는가 없애보려 삭발했는가 죄악으로 수북한 머리털 뺨박 깎았단다

사기행각의 끝은 어딘가

김영일

서울에서 떠나 부산, 광주 대전, 대구로 돌아치며 《자한당》 떨거지들 비리악행 이네 《안보》, 《민생》 떠들며 《좌파심판》 할 때까지 《대장정》을 한다네

민사람의 조소와 란대 모르는척 행각을 계속한다네 민심을 낚아보려 목더지게 부르짖어도 등돌린 민심은 싸늘하기만 할뿐

악녀의 모델로 청청대낮에 제법 끝까지 싸우겠다 웅소리 치는 꼴 간교한 웃음 악행에 혼을 뺏긴 얼굴이들 덩달아 피성을 지르누나 《자유한국당》이 치마바람에 춤을 춘다

짧은 혀가 긴 목 벤다 하였거늘 라경원 너의 앞길 뻔드름히 보여 온다 여기저기 멋없이 설쳐대지 말고 천하악녀 박근혜 외롭지 않게 일론 그 곁에 가는데 좋을듯 하리

가관이로다, 삭발하고 놀아대는 꼴 《국민의 리익》 지켜싸운다네 삭발한다 달라지랴 삭발한다 속으랴 흥물스런 《자유한국당》 그 본색

이보소, 《자한당》의 나리들 삭발한 그 불골 더 멀시받기 전에 차리리 이 세상 하직하는게 좋으리 머리털 말끔히 밀어버린 너희들 남녘의 민심이 땅에서 말끔히 밀어내리라

열적은 객기가 《정의》로 뿔수 없고 교묘한 사기와 간지러운 구걸로는 민심을 얻지 못하는 법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은 백수집단 차려지는것은 환멸과 중요이거니 망신될차라 타고 분주히 다녀봐라 그 행각의 거리가 늘어갈수록 죽음의 길은 더 가까워진다 그 행각의 종착점은 역사의 무덤이다

천벌을 받으리라!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의 분노—

김송림

생때같은 애어린 자식들 잃어 5년세월 다 마르지 않은 피눈물 그것이 너희들 눈엔 물처럼 보이느냐 통절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한당》—인간추물들아

《시체장사군》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 어제는 그 망언으로 모독하더니 오늘은 《그만 우러머으라》고 《자식팔아 생계를 쟁겼다》고

묻는다, 너희도 어머니가 낳은 자식

이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옳긴 옳으나 짐승보다 못한 매몰재덕의 무희한들 남의 눈에 눈물내면 제 눈엔 피가 고인다 했거늘

자식잃은 가슴에 더이상 피눈물은 아픔과 상실의 바다만이 아니다 천벌받아 마땅할 회세의 반역무리들 검푸른 바다에 수장해버릴 오, 피의 갈기 추켜든 분노의 열물이다

악녀에게 하는 말

김태룡

50을 훌쩍 넘긴 이제는 어지간한 나이이건만 입건사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라경원 풍수도 창피도 모르고 기가 뻗쳐 악담을 해대고있다



몸은 21세기에 살지만 정신은 지난 세기 좌파독재시대만을 향수하는 시대착오적인 남조선관 《동끼호페》들이 몇대로 날치고있다. 마치 저들이 민생을 생각하고 구원하는 기사인체 행세를 하면서 거대한 풍자를 《괴상한 거인》으로 착각하고 돌진하는 동끼호페처럼 당국이고 초불민심이고 다치는대로 좌우우돌하는가 하면 정치적소장인 박근혜를 아직도 악녀를 구출해보겠다고 거짓 병명까지 지어내다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허술한 산골주막을 《성곽》으로 착각한 옛 소설의 주인공처럼 십수년전 서울광장에 벌려놓았던 《천막당사》를 다시 차려졌다고 아부제기도 치고 《우주지사》나 된듯 삭발식이라는 푸닥거리도 벌린다.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다고 열혈 끓은 혀에나마냥 개고 《법안》들을 사사건건 물고늘어치며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다 못해 그 놀음도 지루했는지 죄풍들이까지 들고 짐승들도 낫트거울 10시간의 《육탄전쟁》으로 《동물국회》가 어떤것인가를 세상에 시위했다. 동끼호페는 17세기 에스빠냐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인류문명의 번진과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대착오증을 해학적으로 까뻐하기 위해 내세운 소설의 풍자적주인공이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현대판 《동끼호페》들은

변화된 현실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과거의 독재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해 조장인 군사좌파 독재자들도 무색해할 허무맹랑한 지랄을 부리고있다. 미치광이들의 독재부활망상은 케케묵은 《색갈론》을 투구로, 감옥으로 밀쳐입고 《좌파청산》의 칼날을 무지하게 휘두르고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국자의 임명권을 놓고 《야당무시》나 《좌파독재로 인한 민주주의위기》니 떠들며 하루 삼시 꼬박꼬박 밥을 찾아먹는 5시간 30분짜리 《이어받기단식》 놀음을 벌

다. 《좌파, 빨갱이들에게 세뇌를 당했다》고 매몰의 망발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무리들이다. 거울이 없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기에 남조선민심에게 악녀의 종말이라는 교훈의 거울을 주었지만 부정부패와 좌파독재, 사대매국의 오물들이 다사다각 달라붙은 총착한 제 불골은 보러 하지 않고 남을 힐끗고 잡아먹을 구리만 하고있으니 참으로 인민주주의의 패당이랴 해야 할것이다. 동끼호페는 양떼를 100만

은 죽어도 고치지 못하는 유전적, 체질적, 병적인 집착증이 분명하다. 자갈밭으로 굴러가는 늪아 빠진 달구지소리같은 《색갈론》을 시도 때도없이 붙여대기가 지겹지도 않은가. 한사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군사좌파독재시기로, 무당의 주술에 걸려 남조선사회를 엉망으로 만든 악녀의 독재시기에 또 되돌아가려는 《자유한국당》의 필사적인 발악을 보며 역시 독재는 보수패당의 고향이고 그대로 무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만의 무리들, 동족을 모욕하면 《애국자》라 치켜세우고 외세를 규탄

하면 《매국노》라 몰아내는 사대매국의 반역도들, 민중의 혈세를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불령과 대결을 권력유지와 향락의 터전으로 삼는 사악한 무리들은 이렇게 좌파독재에 대한 향수와 부활의 망상으로 파멸과 종말에로의 이어달리기를 하고있는것이다.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체청원운동을 벌리자 《좌파들의 동원력과 결속력은 참으로 놀랍다》면서 《좌파독재정권을 갈아엎자》고 바둑바닥 이발을 갈아대는 자들에게 관용이나 자비는 또 다시 독재의 칼날에 시달리는 부메랑효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하기에 변칙된 현실을 암흑의 독재시기에 또 되돌려보려고 구시대들의 《색갈론》으로 사회를 소란케 하는 역적패당에게 남조선민심은 단호히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력사외곡, 탄핵부정, 평화행렬, 친일매국, 성병죄무리인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정》통단세력과 한몸통인 황교안과 라경원, 김진태를 박근혜가 있는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갈길은 오직 해체되어 없어지는 길밖에 없다. —《자유한국당》해체! 이것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여 시대착오적인 망언, 망동으로 남조선사회와 민족대부를 어지럽히는 보수패당에 대한 준엄한 선고이다. 정송문

《북배후설》의 진상

에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반역한 역적들은 자기에 킨것도 북의 지령을 받아서 한것이 분명하며 기업을 토하고있다. 열도당도없는 억지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북의 인터넷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해체만이 정답이라고 언급한후 청와대제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하는 글이 울랐다. 청원자수가 1초에 30여명씩이나 늘어난것이 우연한것이겠는가고 생억지를 부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북의 언론매체가 《자한당》 해체를 언급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속처리안건지까지 《북배후설》과 연계시키던 여야당이 다 북의 지령을 따른다는것인가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비난을 퍼붓고있다. 《북배후설》을 떠들어대고있다. 원내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역적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배후에 북이 있다

지에 몰릴 때마다 《북공》 조작소동으로 저들을 떠돌린 민심의 눈길을 떼는데로 돌려보려고 획책하였다. 5.18광주인민봉기의 《북인민군개입설》, 《동협전산망 북해결설》,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 등 그 날조진상이 날날이 드러난 모략자작극만 해도 부지기수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입만 벌리면 북의 소행이니, 북의 배후라느니 하는 북수당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자유한국당을 그냥 놓을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심은 동족대결과 전쟁을 부르짖고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어 민생을 도탄속에 만드는 《자한당》의 구역질나는 추태에 침을 뱉은지 오래다. 《자한당》이 피대를 돌리며 《북배후설》을 고야말수록 후의 고립과 파멸의 나라에서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저들의 가련한 물골만 날날이 드러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현대판 《동끼호페》들의 추태

려 민심으로부터 《몸까지단식》, 《단식이 아니라 밥투정》, 《삼척동자도 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조소를 받았다. 산불이 나면 《빨갱이정부》, 《산불정부》의 탓이기 때문이고 당국자를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몰아대는가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 《탄핵을 해야 한다》, 《신적폐》, 《경제부능》과 같은 비린청을 돌리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5.18광주인민봉기를 《폭동》, 《5.18유공자들은 괴물집단》, 봉기를 집안한 퍼뜨린은 《영웅》이라고 떠벌인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세월》호유가족들에게는 《징글징글하

대군으로 착각하고 마구 무질렀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현대판 《기사》는 초불민심에 정면승부를 겨루겠다고 발악을 한다. 아침까마귀나 저녁까마귀나 까옥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로 악녀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라》, 《빨갱이를 죽이라》, 《고야대며 초불민심을 《영웅》해야 한다》고 광기를 부리다 못해 《다이나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레로 광고, 《내란선동》을 해대는가 하면 미운 벌레 장판에 모기듯 남조선전역을 계바라 다니며 《피의 복수》를 부르치고있다. 초불대하에 밀려 시대의 음지에 쭈그리고있던 때를 망각하고 시간이 지나자 물먹

은 죽어도 고치지 못하는 유전적, 체질적, 병적인 집착증이 분명하다. 자갈밭으로 굴러가는 늪아 빠진 달구지소리같은 《색갈론》을 시도 때도없이 붙여대기가 지겹지도 않은가. 한사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군사좌파독재시기로, 무당의 주술에 걸려 남조선사회를 엉망으로 만든 악녀의 독재시기에 또 되돌아가려는 《자유한국당》의 필사적인 발악을 보며 역시 독재는 보수패당의 고향이고 그대로 무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만의 무리들, 동족을 모욕하면 《애국자》라 치켜세우고 외세를 규탄

# 체육 열기로 들끓는다

## — 평양시 체육촌에서 —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에 위치한 평양시체육촌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며칠전 일요일 우리는 체육 열기로 들끓는 이곳 체육촌을 찾았다. 우리와 만났던 인군은 평양시체육촌에서 근로자들에게 대중체육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요일과 명절날같은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체육 경기와 운동을 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인공잔디를 입힌 야외 축구경기장에서는 축구경기가 한창이었다. 알고보니 평양 치과위생용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사이에 진행되는 축구경기였다.

물결모양의 채양을 띄운 야외 축구경기장의 관람석에

서는 두 공장 종업원들이 자기 공장선수들을 응원하느라 떠들썩하고있었다.

저도 모르게 우리도 두 공장 선수들의 축구경기에 끌려들었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선수들이 완강한 방어와 불의적인 역습으로 상대팀을 위협하는가 하면 평양화장품공장선수들은 중간 지대를 장악하고 측면돌파로 득점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일진일퇴의 공격과 방어가 이어지던 속에 평양화장품공장선수들이 먼저 득점하였다. 하지만 상대팀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잃은 점

수를 회복하기 위해 총공격에 나선 상대팀선수들은 마침내 제지되는 머리받기로 한점을 올려 경기는 1:1로 비긴 가운데 끝났다.

경기 종료 후 평양화장품공장의 한 인군은 《우리 공장 선수들의 축구실력이 많이 발전한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자기 공장선수들의 체육실력이 높아져 축구면 축구, 룡구면 룡구, 배구면 배구 어느 종목에서나 다른 공장들에 못지 않다고 자랑하였다.

응원에 여념이 없던 해운 2동의 한 주민은 《직장에

서도, 인민반에서도 늘 체육 열기로 들끓으니 몸과 마음도 젊어지고 청춘의 기백이 넘친다.》고 하면서 대중 체육이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

즐거움 웃음속에 그의 말을 들으며 탁구훈련장에 둘러니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탁구를 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한 모습은 정구장, 바드민턴장, 체육오락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종합적인 체육문화시설들을 그르니 갖춘 대중체육용 사기지인 평양시체육촌, 이곳은 축구, 배구, 룡구 등을 하며 회열과 랑만에 넘쳐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수많은 남녀로소들로 흥성거렸다.

본사기자 김진혁



러명거리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산업미술은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개막된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수많은 참관자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열마전 이곳 전시회장을 찾은 우리에게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한 인군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빛내이는 주체적산업미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회에 조선산업미술창작사,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산업미술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창작한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출품되었다고 말해주었다.

1층 전시회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주시신 270여점의 도안과 860여점의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들이 4개 구역에 전시되어있었다.

안앞에서 걸음에 떼지 못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을 만났다. 그는 고숙진동차형태도안을 보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지혜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진다

적인 수확을 거둘수 있도록 착상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일상생활에 리용되는 갖가지 필수품도안들과 가구비품도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실용성과 특색을 살린 훌륭한 도안들이라고 하였다.

인민들의 고상하고 문명한 정신도덕적품모와 생활기쁨이 안겨오는 의상, 방직도안들과 사람들의 생활상편리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고도안들도 독특한 멋이 있었다.

전시회기간 수많은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는데 이것은 나날이 높아가는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시회장의 2층에는 《소나무》, 《철쭉》 등의 상표도안들과 함께 그에 따르는 제품들도 전시되어있었다. 제순으로 그린 행복의 설계도들이, 제힘으로 마련한 창조적 열매들이 가득차있는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들먹이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각지에서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나무심기를 대중적운동으로 벌리고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을 강화정원사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도록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으며 조경지도를 적극 따르게 하고있다.

남포시에서는 시내중심도로의 랑영도에 특색있는 화단들을 새로 조성하여 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도록 하고 나무심기와 잔디밭가꾸기사업을 즐기게 내밀어 도시의 면모를 나날이 일신해가고있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지대정리와 복지조성, 보도블록들을 질 좋은 색보도블록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평양북도에서는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면시킬 예극의 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창성기짙 나무, 참대수드나무, 밤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한편 회령시에서는 여러 다리를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하고 령길은 물론 평지길의 급한 굽인돌이구간들에 반사거울과 안전간들을 새로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더 잘 보장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반지는 두개가 한 쌍으로 된 가락지에 비해 절반짜리 가락지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반지를 일부 부유한 계층들만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근대이후에 와서야 널리 보급되었으며 여성들속에서 반지를 끼는 풍습은 오늘날에 이르렀다.

장도는 여러가지 장식의 한 작은 칼을 말한다.

이미 세나라시기부터 남자들이 허리에 작은 칼을 차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후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장식적인 의의가 더 강조되어 장도의 집과 자루를 여러가지 재료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차고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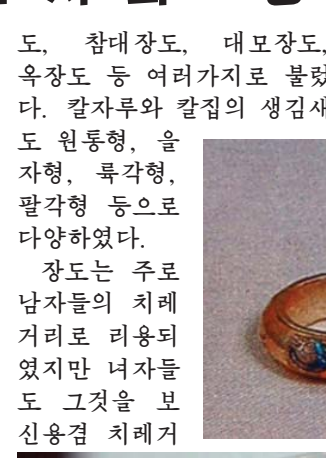
장도는 칼자루와 칼집의 재료에 따라 은장도, 서장

리로 찾다.

공화국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세쌍둥이들에게 은장도와 금반지를 기념으로 주고있다.

본사기자

# 반지와 장도



가락지와 반지



은장도

# 주체적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과시

##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고 말하였다.

이밖에도 전시회장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도 안들도 많이 전시되어있었다. 특히 강병이종합수확기 도안은 비탈밭을 비롯한 여러 지형의 밭에서도 효율

을 발휘한다.

이밖에도 전시회장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도 안들도 많이 전시되어있었다. 특히 강병이종합수확기 도안은 비탈밭을 비롯한 여러 지형의 밭에서도 효율

을 발휘한다.

이밖에도 전시회장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도 안들도 많이 전시되어있었다. 특히 강병이종합수확기 도안은 비탈밭을 비롯한 여러 지형의 밭에서도 효율

# 축구꼴문 그들의 유래

오늘과는 달리 지난날의 축구경기장에서는 그들이 없던 꼴문대를 세워놓고 시험을 하였다.

1905년 영국 런던의 어느 한 축구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두 팀사이에 득점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공격을 한 팀은 분명 공을 차넣었다고 하고 방어를 한 측에서는 공이 꼴문안으로 빠진것이 아니라 문대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고집하였다.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관람석에서는 또 구경꾼들끼리 눈감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을 놓고 서로 열들을 올리고

있었다.

이때 관람석에서 한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것이였다.

《여러분! 방법이 있소. 좋은 방법이 나에게 있소.》

그는 어구공장 주인이였다. 얼마후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목고기잡이용그물을 안고 나타난 그는 잠간사이에 그것을 꼴문대에 쳐놓았다. 이내 경기는 다시 시작되고 득점을 착각하는 현상은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국제축구련맹은 정식으로 축구꼴문에 그물을 치도록 결정하였다.

본사기자

목은 메밀, 옥수수, 강냉이, 도토리 등을 땅에 갈아서 얻어낸 동물을 익혀서 식힌 음식이다.

만든 재료에 따라서 메밀묵, 옥수수묵, 강냉이묵, 도토리묵 등으로 불린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봄이나 이른 여름에는 옥수수, 여름에는 울쟁이묵, 가을에는 메밀묵과 도토리묵을 즐겨먹었다.

본사기자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옥수수묵을 잘게 썰어 소고기볶음, 미나리나물, 김을 두고 초장으로 무친 옥수수묵채를 탕평채라고 불렀다.

오늘도 묵은 만들기 간편하고 매끄러우면서도 소화나 잘되며 맛이 좋아 누구나 즐겨먹는 음식으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 민족음식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옥수수묵을 잘게 썰어 소고기볶음, 미나리나물, 김을 두고 초장으로 무친 옥수수묵채를 탕평채라고 불렀다.

오늘도 묵은 만들기 간편하고 매끄러우면서도 소화나 잘되며 맛이 좋아 누구나 즐겨먹는 음식으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강냉이를 둔 옥수수묵

감자능마묵채

# 사화

# 《평양재사》 (3)

## 글 리 빈, 그림 리성일

김선달은 청찬에 겸손히 사의를 표한 뒤 《이번에는 평양사냥법을 아뢰겠소이다.》하고 다음 장을 펴나갔다.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려달이던 평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때를 틈타서 길마를 지운 소잔동에 빈 용구를 얹고 평이 많은 산골안으로 들어간다. 소를 매놓고 그 둘레에 큰집안마당만큼 풍각지를 쭉 퍼놓는다. 그 다음 평의 대가리를 들이쳐서 있게끔 밭갈이만 한 쇠망치를 소피리에 달아매놓고 사람을 집으로 돌아와버린다. 주린 평들이 풍각지우에 새까맣게 내려앉아 정신없이 먹이를 찾을 때 소는 버릇대로 꼬리를 자꾸 이리저리 흔드는데 그때마다 꼬리끝의 쇠망치가 평대가를 뺨뺨 때리게 된다. 쇠망치에 풍통을 얻어맞은 평은 정신이 아찔해서 푸드득! 날아올랐다가 숨이 끊어지면서 내리떨어지는 죽죽 소잔동의 빈 용구속에 구겨박히곤 한다.

하! 하!... 만장에 또 웃음이 터졌다. 저마다 찬란을 금치 못해하였다.

《들오리사냥보다 수가 높다!》

《들오리한테서 손을 떼구 산짐승을 찾아가세!》

《그 만장짜리 범수를 저 혼자 감춰놓고 썩으면 평만 팔아먹어도 큰 거부가 될터인데 저 김선달이 재산모으기가 싫은게로군. 이런데서 다 털어놓구...》

《하! 하!...》

여럿을 따라 함께 웃던 황해감사가 김선달의 어깨를 대견히 두드리며 《이 사람 평양재사, 자네 것처럼 자꾸 묘수를 꾸며놓다가 내 이 구실상을 몽땅 팔아 들이밀어 두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네. 난 이젠 그만쯤 웃었으면 넉넉하니 재발 빚쟁이랑 만들지 말게.》하고 집짓지 어머는 근심을 보여 또 한바탕 크게 웃었다.

김선달이 선선히 대답하였다.

《소인한테 진 빚을 갏자

아 미친듯이 쏘다니다. 참새란 높은 잠적한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데가 적지 않은 물건이다.

《약은 교양이 밤눈이 어둡다.》고 하지 않는가. 사양에서는 마땅히 이 점을 노려야 성공할수 있다.

손바닥만큼씩 큰 가랑잎(더 크면 더욱 좋고) 한삼테기를 물에 추겨 반듯이 편 다음 죽한 술에 잠겼던 짐승을 멀건 찰싹물에 버무려가

김선달은 너그라이 《서너가지 묘법만 건사하고 그것만 잘 썩으면 평생 고기먹을 일 없이 죽어갈것인데 그만하면 됐지 뭐이 더 모자라는가. 사람이 시작할줄 알면 멀출출도 알아야 한다.》고 점잖게 타이른 다음 세번째로 참새잡이특기를 알려주었다.

먹이가 아예 부족한 이른 봄이면 참새들은 먹이를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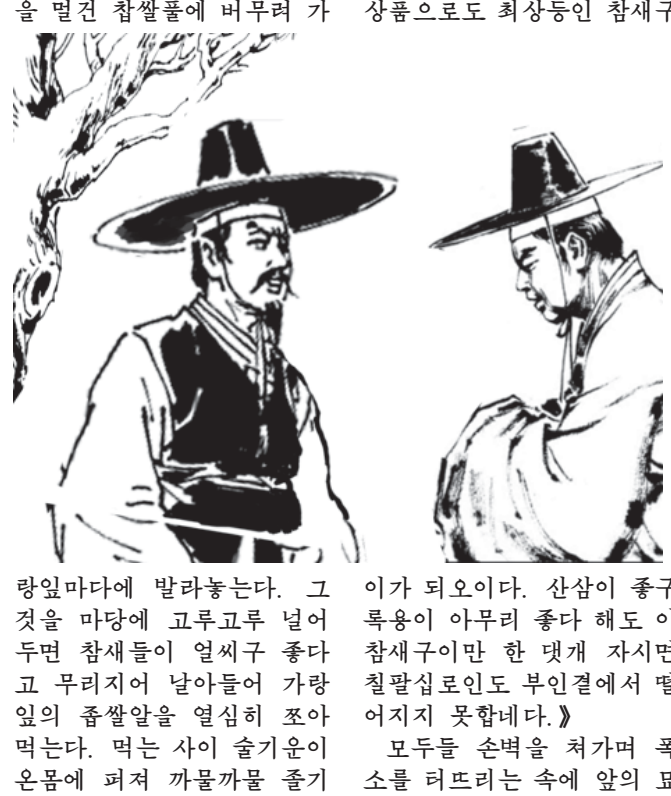
시작한다. 그동안 따뜻한 봄볕에 찰싹물을 먹인 가랑잎은 마르면서 오그라드는데 그속에서 취한 참새는 꼼짝 못하고 갈라지고간다.

이런 때 사람이 할 일이란 고작해서 갈퀴 하나를 들고 생참새가 고기소로 들어있는 가랑잎만두를 술술 긁어모아 더미를 쌓고 모닥불을 놓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설대목 진상품으로도 최상등인 참새구

이가 되오이다. 산삼이 좋구 목욕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참새구이만 한 댓개 자시면 찰싹살로인도 부인결에서 멀어지지 못합네.》

(끝)



# 콜레스테롤을 줄일수 있는

## 몇 가지 식료품

—다시마— 타우린이 풍부하여 있어 혈액 및 담즙에 있는 콜레스테롤량을 줄일수 있다. 다시마에 있는 식물성유 암색조류산도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시킨다.

—강냉이— 칼슘, 린, 셀렌, 레시틴, 비타민E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것들은 모두 혈청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양파— 양파는 혈관을 펴고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양파에는 또한 알릴리류화합물과 같은 작은 랑의 티오아

미노산이 들어있어 동맥경화를 예방할수 있다.

—마늘— 류화합물의 혼합물이 들어 있어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의 형성을 막을수 있다. 이런 물질은 고밀도지단백질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며 심장동맥을 보호한다.

—사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체내에 남아돌아가는 나트륨염을 제거할수 있다. 그러므로 매일 사과를 3알씩 먹으면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수 있다.

본사기자

# 아는 길도 물어오다

《어제 훈장님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을 대주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열변나마 사람에게 물으며 오다니...》

《어제 훈장님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을 대주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열변나마 사람에게 물으며 오다니...》

《어제 훈장님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을 대주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열변나마 사람에게 물으며 오다니...》

《어제 훈장님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을 대주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열변나마 사람에게 물으며 오다니...》

《어제 훈장님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을 대주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열변나마 사람에게 물으며 오다니...》

《어제 훈장님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을 대주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열변나마 사람에게 물으며 오다니...》